

The Aim of Medicine

Young-Min Kim, MD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요즈음 수련의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나 척추관 협착증 같은 질환을 40-5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알지 못했다. 나는 1962년에 의과대학을 졸업하였으니 금년이 졸업한 지 50년이 되는 해이다. 졸업 후 수련기간 동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환자를 안 본 것은 아닌데 이 질환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 교수님과 고민한 기억이 있으며 척추관 협착증 질환은 잘 알고 있었지만 척추관 협착증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이런 환자에게 우연히 Laminectomy를 하여 병세가 호전 됨을 경험한 적은 있었지만 왜 호전되었는지 그 당시에는 몰랐었다. 나는 졸업 10년 후인 1972년에 미국 유학을 갔었는데 위에 언급한 두 질환에 대한 논문이 있음을 그때에야 알았다. 그러니까 돌아해보면 지난 50년간 우리나라 의학은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만큼이나 경이적 발전을 하였던 것이다.

내가 수련기간을 거쳤던 그 시절, 미국 의학계는 3가지 큰 목표를 향해 도전 하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미국 NIH의 연구비를 어떤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었는가 하면, 첫째는 고혈압을 비롯한 심장병 질환 치료, 두 번째는 암 퇴치, 세 번째는 수명 연장을 위한 장기이식술 개발, 세 가지였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심장병 관련 분야는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암 퇴치 문제의 경우에는 눈부신 발전을 했지만 아직도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장기이식 문제는 수명 연장이라는 개념에서 이 또한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다고 생각된다. 우리 정형외과에서 많이 시행하는 인공관절 수술도 장기이식의 한 측면이라고 생각 할 수 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분야에 동력을 집중 하여야 할까?

현재 우리의 임상의학 분야는 선진국에 버금가는 수준까지 도달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나 기초 연구 분야는 여명기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기술 문제도 발전시켜야 되겠지만 기초 연구 분야에 배가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기초 연구 분야에 집중하는 연구자들이 많이 배출되고 이들을 위한 국가적, 사회적 뒷받침이 잘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의학은 심장병 문제, 암 퇴치 그리고 장기이식 문제 등을 계속 연구하여 앞으로도 많은 발전을 이룩할 것으로 믿는다. 노화를 예방하고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유전자 연구, 그리고 오늘날 각광받고 있는 줄기세포를 이용하는 치료법 등 첨단 기법을 개발함으로써 우리 인간이 원하는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우리 인간은 왜 오래 살려고 노력 하는가? 인간 생활을 통해서 정신적 육체적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인가? 단지 그 즐거움 위해서 산다면 인간이 오래 살아야 할 이유나 목표가 될 수 있을까? 300만년의 인류 역사를 보면 인류는 살기 위해서 부단히 자연과의 투쟁을 벌여 왔다. 어느 정도 자연을 극복하게 되고 보니 인구가 증가하여 모여 살게 되고, 모여 살다 보니 욕심 많은 인간은 서로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었다. 지금도 국가와 국가간에는 분쟁을 거듭하고 있고 개인과 개인 간에 경쟁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이 시대가 지나 과학 문명이 발전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면 인간은 서로 싸울 일도 경쟁 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수명이 지금의 2-3배로 늘어 난다면, 우리 인간은 과연 무엇을 하고 지낼 수 있을까?

그때가 되면 인간은 상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의 싸움에 직면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2500년 전 소크라테스는 제자에게 “너 자신을 알라” 라고 했듯이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지내고 있다. 우리 인간에게 많은 시간이 주어 진다면 우리 자신에 대한 연구를 하게끔 될 것으로 믿는다. 실은 선견지명이 있고 용기 있는 자는 이미 이 일을 했으며 지금도 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앞으로 도래할 ‘미래의 그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네 자신을 알라”라는 말은 앞으로도 깊이 생각해 볼 가치가 충분하게 있지 않나 생각한다.

Submitted: February 25, 2012

1st revision: March 19, 2012

2nd revision: March 21, 2012

Final acceptance: March 21, 2012

• Address reprint request to **Young-Min Kim, MD**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101 Daehak-ro, Jongno-gu, Seoul 110-744, Korea

TEL: +82-2-2072-2368 FAX: +82-2-764-2718

E-mail: hipkim@korea.com

Copyright © 2012 by Korean Hip Society